

색바랜 대인동 벽화 색동옷 입고 되살아났네

제작 10년만에 옛 모습 잃고 잊혀져
'별장' 내년까지 되살리기 프로그램
벽화 3개·설치작품 1개 완성



대인예술시장 '별장'이 예술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벽화제작 프로그램 'Let美 in 공작소'를 추진한다. 강선호·윤성문 작가가 심터 담벼락에 공동 작업한 '대인, 어제 오늘'.



이승일 작 '인어는 살아 움직인다'.



이지은 작가가 기존에 설치된 작품 '무등이'의 배경으로 그려넣은 '무등산 서석대'.

1970년대·1980년대·현재의 대인시장 모습, 무등산 서석대, 알록달록 하트 모양. 최근 광주 대인시장에 새로운 벽화가 들어서며 볼거리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점점 예술가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대인예술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다.

대인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한국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릴 만큼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다. 쇠퇴해가던 대인시장이 현재 활성화되기까지 문화·예술이 있기에 가능했다.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 '복덕방 프로젝트'를 계기로 당시 절반 가까이 비어있던 점포들에 예술가들이 자리잡아 시장에 예술적 색채를 입혔다.

대표적인 게 벽화다. 역도를 하듯 셔터문을 들고 있는 장미란, 문을 열고 나오는 슈퍼맨, 천사 날개를 한 돼지 등 골목 구석구석에 그려진 벽화들은 시장을 둘러보는 재미였다.

하지만 그려진 지 10년이 되가는 벽화들은 세월을 못 이기고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상황이다. 낡은 벽이 무너지거나 색이 바래고 페인트가 떨어져나가며 옛 모습을 점차 잃어갔다. 일부 시장 상인들도 벽화 앞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그림이 그려진 셔터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벽화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제2주차장 선동열 벽화는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에 일부 담벼락이 무너지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광주시 동구는 안전을 고려해 선동열 벽화는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무너진 대인시장 2주차장 선동열 벽화.

철제구조물을 덧댔고 롯데 자이언츠 이정태 선수의 스윙을 하는 모습을 그린 맞은편 벽은 시멘트를 덧바라 보강했다. 시리즈 구성을 보여줬던 벽화 연작을 더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별장 사무국측은 대인시장의 예술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상·하반기 벽화제작 프로그램 'Let美 in 공작소'를 추진한다. 1차 프로그램에는 강선호·윤성문·조은솔·이지은·이승일 작가가 참여해 지난 23일 벽화 3개와 설치작품 1개를 완성했다.

강선호·윤성문 작가가 공동 작업한 '대인, 어제 오늘'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인시장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길이 8m 벽을 3등분해 공용터미널이 있

던 1970년대 모습과 상인들이 5·18 시민군들에게 나눠줄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담았다.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니는 오늘날을 묘사해 시대에 따른 대비를 보여준다.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면 조은솔 작가가 컬러 스프레이와 붓을 이용해 형형색색 하트를 그린 '러브'가 나온다. 형형색색 하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지은 작가는 기존에 설치된 배수민·정유승 작가의 무등산 캐리커 작품 '무등이'와 어우러졌다. 무등산에 사는 고양이 캐릭터 뒷편으로 '무등산 서석대'를 그려넣어 3차원 입체감을 부여했다.

한글을 활용한 설치작품을 하고 있는 이승일 작가는 의자를 예쁘게 꾸었다. 벤치 등받이 위에 노랑·주황·검정·하얀색 나무로 만든 한글 자음·모음 작품 '언어는 살아 움직인다'를 배치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재문, 설박, 전민준 등 작가 5명이 참여해 벽화를 더욱 확장할 예정이다.

별장 사무국 관계자는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아시안 지원이 끊기고 상인들이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며 "Let美 in 공작소' 벽화 작업은 더이상 아시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후대에 '대인시장에는 예술과 예술가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숨어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양귀비와 제주 바다...송부미 개인전

29일~7월 5일 원갤러리

붉은 양귀비 꽃이 화면에 가득하다. 화려한 색깔의 꽃들이 장악한 캔버스는 역동적이다. 양귀비 꽃 사이로 보이는 바다 역시 생동감이 넘친다. 양귀비와 제주 바다. 서양화가 송부미가 즐겨그리는 소재다.

화가 송부미씨가 29일부터 7월 5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원갤러리에서 다섯번째 개인전 '제주 내 품으로'를 연다. 17년 전부터 제주에 살며 제주와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가진 그녀가 광주에서 여는 첫번째 개인전이다.

제주에서 '부미 갤러리'를 운영하는 그녀는 오랫동안 제주의 사계를 화폭에 담아왔다. 아름다운 해변과 부서지는 파도, 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바다 등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옛 항수를 자극하는 과거의 모습도 함께 담았다. 무엇보다 화려한 양귀비와 어우러진 바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작가는 "화사하고 아름다운 양귀비를 보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하는 소재를 화폭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선대 가정교육과를 졸업하고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사 과정을 마친 송씨는 1995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현대 여성 미술작가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며 올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제주 내 품으로'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10-3782-783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제주'

다큐영화 '바람의 춤꾼' 관객과의 대화

30일 광주극장

이삼헌씨 15년 인생 기록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영화 '바람의 춤꾼' 관객과의 대화가 오는 30일 오후 7시20분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다큐멘터리 '바람의 춤꾼'은 30년 넘게 시대의 아픔을 춤으로 표현해온 이삼헌의 인생을 15년 동안 기록한 작품으로 최상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는 발레리노를 꿈꾸다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에 충격을 받아 꿈을 접고 거리의 춤꾼으로 나선 이삼헌 씨의 2002년 이후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번 행사의 사회는 사진 작가 나경택



씨가 맡으며 최상진 감독과 이삼헌 배우 이외에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

한다. 제작사는 이번 행사에 5·18 유족을 초청, 함께 영화를 감상할 예정이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